

질문으로 하는 성경공부: 마가복음

이 성경공부의 목적: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¹

성경공부의 과정: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신학(Incarnational Theology)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고 인도자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Inductive Bible Study) 성경적인 삶의 가치, 정체성,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Biblical Value, Identity, Purpose, VIP)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고 (Social Holiness)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서 (Accountability, Covenant) 개인 구원 (Individual Salvation-성령의 9 가지 열매를 맺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룬다 (Communal Salvation-사회 정의와 문화 변혁을 실현함).

각 과의 틀: 웨슬리의 <은총의 신학> (Grace Theology)에 기반해서 다음 5 가지 틀에 맞추어 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 먼저오심 (Prevenient Grace),
- 만나주심 (Justifying Grace),
- 다듬으심 (Sanctifying Grace),
- 들어쓰심 (Christian Perfection),
- 삶의 현장에서(Communal Salvation and Social Holiness)에 맞추어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등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의 세 단계로 나누는데, 웨슬리의 은총 신학은 <관찰>과 <해석> 질문을 한 후에는, 적용 질문을 <먼저 오심>, <만나주심>, <다듬으심>, <들어쓰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로 세분한다. 그래서 각 과에 질문은 세 단계가 아니라 7 단계가 된다.

¹ (본 성경공부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소그룹 성경공부 아카데미에서 제시한 다음 성경공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질문의 구성과 성경 공부 인도 주안점

관찰	본문을 읽고나서 누구나 쉽게 관찰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화의 장을 연다	
해석	성경안의 호기심을 당기는 질문을 통해 전체 성경공부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때 아직 정확한 뜻을 얻지 못해도 괜찮음. 아래 질문들에 답하며 나누다 보면 차차 깨달아질 수 있음)	
먼저오심	Prevenient Grace-선행 은총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을 떠올리고 그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 오셔서 만나 주셨는지 나눈다. (선행은총: “주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뜻)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식으로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나요?
만나주심	Justifying Grace-의인의 은총 <u>예수님을 만나서 죄책감, 수치심, 불안감, 공포에서 벗어나 자기를 긍정하게 된 순간을 되새기도록 도와주는 질문을</u> 만들어 주세요. 이 때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 주는 질문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의인은총: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뜻으로 믿음과 회개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 거듭 남/중생과 같은 의미)	그렇게 ----- (앞에 표현한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함) 였던/하던 성도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던 경험을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었나요?
다듬으심	Sanctifying Grace- 성화 은총 <u>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성장하도록 돕는 질문을</u> 만들어 주세요. 이 때 삶의 가치관	성도님의 삶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도록 돕는 사람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성도님이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p>(Value)를 확인해 주는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p> <p>(성화은총: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신자의 실제 삶과 삶의 능력/치유의 은혜를 부여받는 경험을 말함)</p>	<p>붙잡았던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p>
들어쓰심	<p>Christian Perfection-그리스도인의 완전</p> <p><i>신앙인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보람을 확인하게 도와주는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이 때 삶의 목적 (Purpose)을 되새기게 하는 질문입니다.</i></p>	<p>성도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p>
공동체에서 실천	<p>In community life- 믿음의 공동체 실천. 실제 매일의 삶에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질문입니다.</p>	<p>성도님은 앞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빛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p>

마가복음 1 장

[막 1:16-20, 새번역]	
16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19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관찰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곳은 어디인가요?
해석	“때가 찼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오심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일할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만나주심	주님은 이스라엘의 낙후된 지역 갈릴리에서 살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동요가 일어났을까요? 주님께 응답을 하면 제자들의 삶에는 무슨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주님을 만난 후 당신의 삶(내면/외부)에 찾아온 변화는 무엇인가?
다듬으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같이 가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 중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까요?
들어쓰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제자들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 장

1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2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3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4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6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12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막 2:1-12, 새번역)

관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했나요?
해석	주님은 왜 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오심	중풍병자는 귀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을 말해보세요.
만나주심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죄의 용서’는 전인적 회복-몸과 마음, 영혼 모든 것의 치유-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듬으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난이후 어떠한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나요? 주님은 그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을 인도하셨나요?
들어쓰심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님 앞으로 병자를 인도하여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3장

<p>[막 3:1-6, 새번역]</p> <p>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p> <p>2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p> <p>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p> <p>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p> <p>5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p> <p>6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p>	
관찰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난 날은 어떤 언제(무슨 요일)이었나요?

해석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과연 고쳐주는지 지켜보고 있었나요?
먼저오심	유대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며 심지어 병을 고치는 일에도 강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 법을 금하면서까지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주심	주님께서 안식일에 위험을 감수하시며 자신의 병을 고쳐 주셨을 때 그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혹시 변화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듬으심	안식일법을 가지고 트집을 잡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괴롭히려 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앞으로 각오하며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쓰심	이 병자는 안식일이 되면 주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일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빚지자로서 당신이 주님의 날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의 공동체에서 형식적인 관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진실하게 실천할 수일 하나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막 4:26-32, 새번역]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27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낱알을 낸다.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32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관찰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도 같다고 하셨습니까?
해석	씨앗이 자라나 큰 가지를 뺀 나무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먼저오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앗처럼 땅에 심기어지며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신 때는 언제인가요? 그 때 씨를 받아들이던 당신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였나요?
만나주심	그 복음의 씨앗을 품었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이전에도 뭔가 다른 씨앗을 품은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씨앗과 복음의 씨앗은 어떻게 달랐나요? 기억을 떠올리며 나누어 보세요.
다듬으심	당신의 마음 밭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까요?
들어쓰심	주님은 겨자씨 만한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지를 뺀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 어떠한 보람과 기쁨이 찾아올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나의 공동체가 새들이 깃드는 좋은 나무(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5장

[막 5:1-20, 새번역]

- 1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 3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 4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 5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 7 큰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 8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 9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 10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 12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 13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 1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 15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 16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 17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 19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 20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관찰	예수께서 바다 건너 찾아간 마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	--

해석	그가 예수께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는 주님의 어떠한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먼저오심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광인을 만나셨을 때 그는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었나요? 그곳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삶 가운데도 세사의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힘과 도움이 되던 때가 있는지요? 그 때는 언제였나요?
만나주심	예수께서 그 광인을 만나 악한 귀신을 쫓아내자 광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나요?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셨을 때에 당신의 내면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다듬으심	예수님의 명령으로 악한귀신들은 ‘돼지떼’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밀매하던 사업’)로 들어가 벼랑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귀신은 나갔지만 마을사람들은 불법 밀매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위하여 삶의 영역에서 잘못된 것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거라사의 광인은 이제 자신에게 시작된 새로운 인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은혜로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끼친 선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몸 담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6 장

[막 6:34-44, 새번역]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5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36 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40 그들은 백 명씩 또는 쉰 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41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44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이었다.

관찰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이며 시간은 어느 때 인가요?
해석	제자들은 빵 이백데나리온 어치는 사야 군중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백 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여 어느 정도 될까요?
먼저오심	주님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한 때가 있나요? 언제이었나요?
만나주심	주님은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5 병 2 어)를 가지고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주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 갈급했던 것이 채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다듬으심	삶이 어둡고 어려울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낙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들어쓰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공동체에서 실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영역에서 오병이어를 베풀길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7 장

[막 7:24-30, 새번역]	
24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25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27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8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9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관찰	예수께 찾아온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습니까?
해석	주님은 자기 딸을 고쳐 달라는 여인에게 ‘빵을 집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빵’은 무엇이고 또한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먼저오심	주님은 유대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리는 두로(이방 지역)에 찾아 오셔서 이방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일은 언제인가요?
만나주심	사랑의 주님이 불쌍한 여인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의외로 받게 된 시험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가요?
다듬으심	주님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스스로를 낮추면서까지 딸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할 때에 그녀의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당신의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시기 원하실까요?
들어쓰심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막 8:11-22, 새번역]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12 예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13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14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p>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p> <p>16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p> <p>17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p> <p>18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p> <p>19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열두 광주리입니다."</p> <p>20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광주리입니다."</p> <p>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p> <p>22 그리고 그들은 벳새다로 갔다."(*)</p>	
관찰	주님께 찾아와 시비를 건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해석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오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표징"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기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당신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만나주심	바리새파 사람들은 과장되고 허위의식이 가득한 위선의 신앙생활을 하였고 헤롯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 외형적인 모습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허세를 조심하라 하시며 진실한 내면의 신앙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을 받은 일이 있나요?
다듬으심	제자들의 배에는 빵이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들어쓰심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벳새다였습니다. 벳새다는 헤롯이 로마의 권력을 숭상하여 조성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힘이 강조되던 곳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세상의 힘을 직면하며 담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도 세상의 힘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명 '벳대다'은 '벳새다-율리아스'(Bethsaida-Julias)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지역을 통치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황제의 딸 율리아스의 이름을 붙여 개명하고 주민을 옮기고 요새화하여 거대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다 전합니다.

마가복음 9 장

[막 9:2-8, 새번역]	
2 그리고 옛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3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5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6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7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8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관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을 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나요?
해석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광경을 펼친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가요?
먼저오심	주님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 그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일상 속에 머물고 있던 당신의 신앙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삶의 상황이나 조건을 갑자기 변화시킨 일이 있었나요?

만나주심	주님은 높은 산에서 눈부시게 흰 모습으로 구약의 위대한 인물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맛보게된 '아주 색 다른'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다듬으심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신비스러운 광경이 너무 자랑스러워 산 위에 머물러 있겠다고 합니다. 당신도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을 잊고 떨어져 살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삶은 신앙에 과연 유익이 있을까요?
들어쓰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비스러운 세계를 보이신 후 바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당신이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주변에 신앙인들 중에 신비스러운 일만 강조하고 세상을 피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영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 장

<p>[막 10:2-16, 새번역]</p> <p>2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p> <p>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p> <p>4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p> <p>5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p> <p>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p> <p>7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p> <p>8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p> <p>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p> <p>10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p> <p>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p>
--

<p>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6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p>	
관찰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혼을 했습니까?
해석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오심	남편들이 율법을 이용하여 아내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세상의 법과 규칙들에 실망을 한 경우가 있나요? 그 때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법과 어떻게 다르게 찾아왔나요?
만나주심	세상의 법은 완벽하지 않아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피해를 주게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진 좋은 복은 무엇이었나요?
다듬으심	주님의 '은혜의 법'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보고 지켜줄 것을 명령합니다. 부부간에 따로 따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서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들어 쓰심	주님의 사랑의 법은 '약한 자'(낮은 자)를 돌보며 받아주는 제자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 처럼 약하고 힘겨워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볼 때 어떠한 기쁨이 찾아오나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좋은 방안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마가복음 11 장

[막 11:15-19, 새번역]	
15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6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17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으레 성 밖으로 나갔다.	
관찰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해석	주님은 성전 뜰의 장사꾼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격노합니다. 주님은 왜 '강도'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먼저오심	성전의 장사꾼들은 성전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공급하다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 행위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나주심	주님은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때로 아주 엄한 방법으로 깨우치십니다. 주님의 꾸짖으심을 우리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종할 때에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경험한 주님의 꾸짖으심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다듬으심	예수님의 질책에 성전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없애 버리자고 논의합니다. 성전을 '기도'가 아닌 '장사'하는 곳을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막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넘어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선포되고 깨달음 속에 당신이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 얻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하게 한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공동체에서 실천	성도 개개인의 바른 신앙 자세와 실천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2 장

[막 12:38-44, 새번역]	
38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1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램돈 두 닢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4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관찰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헌금함 맞은편에서 무엇을 관찰하셨습니까?
해석	율법학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신앙은 어떤 행위로 비교가 되었나요?
먼저오심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위선'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 세계와 외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회적 역할이나 조건이 이런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로 고민한 적이 있었나요?

	그 때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만나주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잘못들은 물론 내면세계의 어둠까지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때 당신에게 찾아온 기쁨은 어떠했나요?
다듬으심	가난한 과부는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과부와도 같이 전적인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이를 행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율법학자의 위선은 과부의 헌신에 때문에 그 외형적인 빛이 바래졌습니다. 성도의 참되고 진정한 헌신은 세상의 위선을 무색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마가복음 13 장

[막 13:9-13, 새번역]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0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13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관찰	주님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해석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오심	당신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귀한 일을 시작할 때에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령은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만나주심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더라도 깨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11 절과 13 절을 참조하여 나누어 보세요)
다듬으심	당신이 복음전파를 위하여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힘과 지혜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쓰심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까닭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계 곳곳에 선포되고 오늘 우리에게 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복음전파를 위해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4 장

[막 14:43-52, 새번역]

43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44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45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p>46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p> <p>47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 버렸다.</p> <p>4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p> <p>49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p> <p>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p> <p>51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흠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p> <p>52 그는 흠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p>	
관찰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의 광경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말고 이름은 모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붙잡힐 때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요?
해석	주님은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일까요?
먼저오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 역시 유다 (혹은 다른 제자들)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한적이 있나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만나주심	주님께서서는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자기의 몸을 내어 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스스로 붙잡히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다듬으심	주님이 잡히실 때에 칼을 들어 폭력으로 항거하려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흠이불을 벗은 채 맨몸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당신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행동을 비추어 볼 때 당신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들어쓰심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혀 가실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걷고 있는가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공동체에서 실천	믿음의 공동체에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5 장

[막 15:21-32, 새번역]

21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23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24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25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27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28]

29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30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31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관찰	본문 가운데에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몸이 닿은 사람들은 몇 명인가요? 그들은 누구?
해석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오심	구레네 시몬은 길을 가다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물론 이 일로 그는 훗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당신도 뜻하지 않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나요? 그 때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만나주심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흉악한 죄인의 자리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다듬으심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희생'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서 당신이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 장)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영광, 그리고 보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희생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6 장

[막 16:9-18, 새번역]

9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10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p>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p> <p>12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p> <p>13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p> <p>14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이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p> <p>15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p> <p>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p> <p>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p> <p>18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p>	
관찰	안식 후 첫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해석	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을까요?
먼저오심	주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죽음과도 같은 나락에 떨어져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일이 있나요? 서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만나주심	주님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실망하며 시골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곧장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 갑니다. 이들 마음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듬으심	주님의 부활,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도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주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시면 좋겠습니까? 각자 나누어 주세요.
들어쓰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영적인 권세와 신비스러운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중에서 어떠한 것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을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까?